

(주)넷피아닷컴 **Netpia**

인터넷 강국의 자존심을 한글로 지켜간다



“

넷피아는 한글(자국어)인터넷주소와 국제도메인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통해 인터넷 강국 코리아를 실현하는  
기술 중심의 벤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최근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아울러 보다 쉬운  
인터넷 사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신규 등  
록하는 회사들도 사이트 주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게 늘어가는 인터넷사이트만큼이나 외우기  
어려운 사이트들이 생기면서 사용자들에게도 여간 불편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속 시원하게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다. 바로 ‘넷  
피아’이다.

예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얼마나 고심  
하였는가는 최근 한국을 배우고자 한글을 배우는 많은 외  
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렇게 잘 만들어 지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모자람이 없는  
한글의 독특함과 섬세함을 인터넷 강국의 자존심과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이 국내 벤처업체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

**‘.com?’, ‘.co.kr?’ 이전 한글로**

넷피아는 97년 7월 설립되어 ‘인터넷 주소와 e메일주  
소의 한글화(자국어화)’를 목표로, 언어의 장벽이 없는 인  
터넷 유토피아(InterNET + UtoPIA)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젊은 벤처기업이다.

한글 인터넷 주소가 생소하다는 사람도 있다. 혹은 한  
글 도메인과 혼동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글 인터넷 주  
소란 www로 시작하는 기존의 영문 인터넷 주소 대신 한  
글로 된 회사명, 서비스명, 개인의 성명에서부터 숫자로  
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념일 등의 숫자를 인터넷 주  
소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또는 정부부), 서울대, 박찬호 등  
을 인터넷 주소 창에 치면 바로 관련 사이트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사이트 주소 뒤에 붙는 ‘.com’,  
‘.co.kr’을 생략한 영문 사이트만 쳐도 연결이 가능한 영  
문 인터넷 주소(예 : KTF, SK, MBC, LG 등)와 숫자 인  
터넷 주소(예 : 001, 119, 1004, 2424, 8282 등)와 이들  
모두를 조합한 조합 주소(예 : LG증권, 123여행사 등)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e메일 주소도 한글화가 가능하게 넷피아가 도와  
주고 있다.

한글 e메일 주소는 널리 통용되는 개인의 성명, 별명,  
직급, 소속 등 사용자를 나타낼 수 있는 한글을 e메일 주  
소로 사용하여 복잡한 영문 e메일 주소 대신 간편하게 메

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이나 기업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한글 e메일 주소는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기 좋아 자신만의 개성 표출을 즐기는 신세대들에게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함에 따라 넷피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때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의가 들어온 적도 있다.

“넷피아도 한때 기업 인수에 대한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솔깃한 제의였지만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넷피아가 하는 일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넷피아를 끌고 있는 이판정 사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넷피아의 한글 인터넷 주소가 가지는 의미는 영문 위주의 인터넷 주소에 자국어 인터넷 주소라는 자부심까지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글 인터넷 주소가 환영을 받는 곳은 해외 거주 한인들이다. 대부분 한글 S/W를 쓰지만, 한국에 관한 사정에는 어두울 수 밖에 없어 답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주소 창에 찾고자 하는 정보에 관련된 한글을 입력하면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는 서비스는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기에 충분했다.

“하와이에 가서 회사 서비스를 소개하니 많은 교포들이 반가워 하더군요. 그동안 국내 사이트를 일일이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쉽게 현지 김치넷과 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솔루션 수출

영문으로 된 인터넷 주소의 복잡함과 영어로 표현하기 힘든 자국어 브랜드(회사명, 상호)의 고유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 언어로 된 인터넷 주소의 사용을 위해 개발한 한글(자국어)인터넷 주소 솔루션은 넷피아 기술연구소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솔루션이다.

현재 넷피아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국내 유명 42개 ISP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한글 인터넷 주소 시장의 표준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행자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의 시군구 행정기관 100%가 한글 인터넷 주소를 등록 완료하여 세계 최초로 자국어 인터넷을 쓰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



여하고 있다.

넷피아의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는 단지 한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 언어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국어 인터넷 주소’라는 이름으로 중국, 일본, 태국 등의 비영어권 국가는 물론 영어권에 이르기까지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통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기술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한글 e메일 주소를 개발하여 디지털시대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자국어 인터넷 주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PAN(Asia-Pacific Advanced Network),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많은 국제회의에서 넷피아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가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UN의 공식초청을 받아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WISIS)에서도 발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IT 강국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넷피아는 한글(자국어)인터넷주소와 국제도메인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인터넷 강국 코리아를 실현하는 기술 중심의 벤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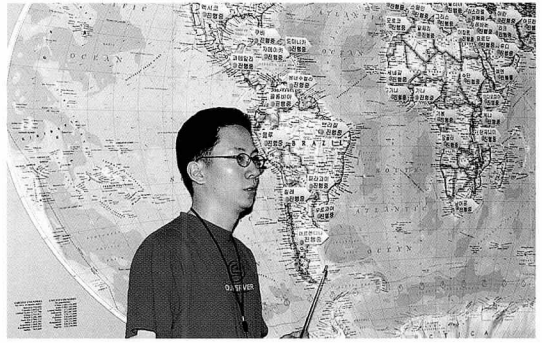
“영문 인터넷 사이트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와 권한 역시 미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글 인터넷 주소는 다를 겁니다. 인터넷 주소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 세계가 자국어 사이트로 접속한다?!

넷피아의 한글 인터넷 주소 시스템은 최근 서비스의 독특함을 이용한 재치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어투인 '맞습니다. 맞고요'를 개인이 등록하여 청와대 홈 페이지로 연결시키는 일이 네티즌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다.

또한 넷피아의 한글 인터넷 주소는 자국어 인터넷 주소 솔루션이라는 개념으로 세계적으로 수출의 길도 활발히 닦고 있다. 이를 위해 넷피아에서는 APRICOT, 한국어 정보학회(KLIS) 다국어 통합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ICANN 회의, 아시아 태평양 선진 네트워크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 회의에 참가하여 솔루션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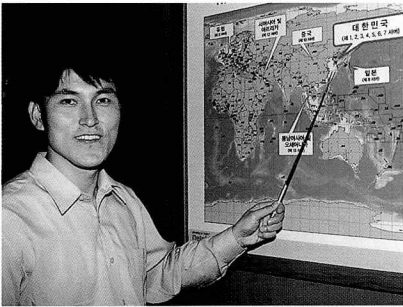
넷피아는 자국어 인터넷 주소 시스템(ngDN Kit)을 통한 국내 주요 통신사(ISP)의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 동참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하여 국내 인터넷 주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넷피아는 한글 인터넷 주소의 구현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 일본, 태



국 등을 비롯한 자국어 인터넷 주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많은 비영어권 국가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곧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 표준화 실현"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 격차 해소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 벤처로부터 시작되어진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의 세계 시장 진출은 이제 힘차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 대표이사 이판정



벤처기업은 여러모로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큰 게 사실이다. 특히 대표이사의 활동 여하에 따라 기업의 발전 여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판정 사장이 보여주는 활동적인 모습은 넷피아의 미래가 밝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판정 사장은 국내 인터넷 도입 초기(web) 도메인 등록 정책에서부터 활동한 인터넷 1세대이다. 현재 가장 성공한 인터넷기업으로 유명한 '다음'의 이재웅 사장과 같이 연구했을 정도로 인터넷과 인연이 많았던 이판정 사장은 국내 인터넷 도입 초기에 기업 도메인 계몽 및 도메인 안정적 확보 활동과 한국인터넷정보센

터(KRNIC) 도메인 정책 수립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도메인 관련 활동을 하다가 자국어 인터넷 주소와 e메일 주소 등에 관해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에 뛰어 들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산하 중소기업 연구원 강사(도메인 네임 및 벤처기업 특화전략 부문)로 일한 바 있는 이 사장은 한글 인터넷 주소 솔루션을 개발한 후 APRICOT 1999·2000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소개를 했으며, 각종 국제 회의에서도 자국어 인터넷 주소 솔루션에 대해 수 차례 발표한 바 있는 활동가이다.

사업을 하면서 겪은 애로점에 대해 이사장은 "기업이 살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토양이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벤처의 아이디어가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장하기 좋은 토양과 병충해나 날짐승 등의 해로운 것들이 없는 환경이 된다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투자가 없어도 사회적인 나쁜 관행만 없다면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라고 밝히며 벤처기업가 다운 패기를 보여 주었다.